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오 상 학*

〈차 례〉

- | | |
|--------------------|-----------------|
| 1. 서론 | 4. 19세기의 제주도 지도 |
| 2. 18세기 이전의 제주도 지도 | 5. 결론 |
| 3. 18세기의 제주도 지도 | |

1. 서론

제주도는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넓은 면적의 섬으로 일찍부터 인간이 거주해 왔다.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과의 교역도 비교적 활발했던 지역으로 특히 고려시대 이후에는 국내 최대의 牧馬場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적 관심이 두드러졌던 곳이다. 제주도가 지니는 이러한 경제적,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형세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제작이 일찍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목종 때에는 제주도의 상서로운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자 조정에서 太學博士 田拱之가 파견되어 산의 형상을 그리고 왕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데¹⁾ 당시의 그림은 폭발로 형성된 산과 그 주변 지역을 그린 회화식 지도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전기 지리지와 지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던 양성지가 1482년(성종 13)에 「濟州三邑圖」를 그려 올렸다는 기록²⁾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고을이나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1) 李元鑑, 『耽羅志』, 濟州, 古蹟條.

2)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13일, 임자.

변방에 비해 지도가 활발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는 대부분 조선후기 간행된 것이다. 다른 지역의 지도들도 대부분 비슷한 실정인데 조선전기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들이 전란을 거치면서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존하는 단일군현의 지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가 남아 있다.

근래에 이러한 고지도에 대한 연구와 영인본 간행이 이뤄져 조선시대 제주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도 고지도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李燦 교수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는 18세기의 대표적인 탐라지도인 『耽羅巡歷圖』 중의 「漢拏壯觀」, 「耽羅地圖并序」, 「耽羅座標圖」의 세 종의 지도를 검토하여 특성을 밝혔다.³⁾ 또한 이 시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耽羅巡歷圖』와 『南宦博物』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영인·간행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고지도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 단위의 고지도 영인본 『濟州의 옛 地圖』(1996)을 간행하여 관련 연구자 및 일반 대중들에게도 제주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제주시청의 주관하에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제작한 『耽羅巡歷圖』의 영인 간행이 새로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탐라순력도』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행해졌다.⁴⁾ 또한 제주도 고지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특징을 밝힌 연구가 양보경 교수에 의해 행해져 제주 고지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⁵⁾

이 글은 이러한 기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제주도 지도들을 바탕으로 하여 변화의 모습들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제주의 옛 지도』에 수록된 고지도 가운데 대표적인 지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제작시기별로 분류한 다음, 각각의 시기별로 지도의 특성과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⁶⁾

-
- 3) 이찬, 1979, "18세기 탐라지도고," 『지리학과 지리교육』 제9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12.
 - 4)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탐라순력도연구논총』, 고지도 부분은 拙稿,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참조.
 - 5) 楊普景, 2001, "濟州 古地圖의 類型과 特徵," 『문화역사지리』 15, 81~102
 - 6) 여기서는 제주도만을 단독으로 그린 지도뿐만 아니라 『대동여지도』의 제주도 지도처럼 대축척 전도 가운데 수록된 지도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2. 18세기 이전의 제주도 지도

앞서도 언급했지만 제주도는 국내 최대의 貢馬 사육지이며 국토 방위의 요새지로서 여타 지역보다도 중시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조선전기부터 제주도의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482년 양성지가 제작한 『제주삼읍도』 이외에도 계속적인 지도제작이 행해져 다양한 지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임란 이후에도 국방과 관련하여 지도제작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시사하는 기록이 단편적으로 보인다.

1709년 牧使 李奎成이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⁷⁾ 『耽羅地圖并序』의 하단 끝 부분에 수록된 기록이 그것이다. 지도 여백의 서문 가운데 水路를 기술한 부분에서 舊地圖와 新地圖를 언급하고 있다.⁸⁾ 이를 통해 볼 때, 1709년 『탐라지도병서』를 목판으로 만들 당시 이미 두 유형의 지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이전 시기에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朝鮮邦城之圖』와 같은 조선전기의 전도에도 제주도가 그려져 있으나 이의 모습은 매우 소략하여, 이것으로 당시 제주도 지도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행히 18세기 이전 제주도 지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지도가 있는데, 최근 경북대에서 영인 간행한 『東輿備考』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이다. 『동여비고』는 都城圖 중에서 경덕궁이나 소덕문으로 표기된 점과 1711년에 축조된 북한산성 등의 표시가 없는 점, 또 강화도 돈대의 숫자와 경상도 북부 주현도에 順興府의 표시가 없는 점을 중시하여 1682년(숙종 8)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⁹⁾

17세기 후반경에 편집된 『동여비고』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는 전체적인 모습이 감자처럼 둥글게 그려져 있으며, 지도의 내용도 이후의 지도에 비해 왜곡이 심하다. 제주, 정의, 대정의 세 고을의 표시가 부각되어 있지만 고려시대의 속현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조선전기에 혁파된 사찰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오름의 모습

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옛 지도』, 1996, 8쪽.

8) 『耽羅地圖并序』, 水路 舊地圖云 自濟州距海倉九百餘里 新地圖云 自禾北抵甬吉島一百十里 既不得尺量水路 則指言其里未得其詳 而自濟州距海倉也 甬吉島幾過其半 則不下四百餘里

9) 이상태(1998), 『東輿備考』 解題, 『東輿備考』, 경북대학교 출판부.

이 자세히 그려져 있지만 위치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 제주목의 치소에 있었던 관덕정이 한라산 기슭에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중산간에 설치되어 있었던 목마장이나 해안 주위에 있었던 방호소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도에 표시된 것은 읍지의 古蹟조에 표시된 항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역사부도적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최소한 조선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이다. 이 지도와 똑같은 사본이 규장각에 『조선강역총도』라는 명칭으로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李衡祥 牧使 종택에 소장된 『탐라도』도 18세기 이전에 제작되었던 지도로 보인다. 이형상은 1702년에서 1703년에 걸쳐 제주목사로 재직했는데 이 때 제주에서 있던 지도를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따라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지도의 구도나 내용을 통해 볼 때 최소한 1709년 『탐라지도병서』의 제작 이전의 지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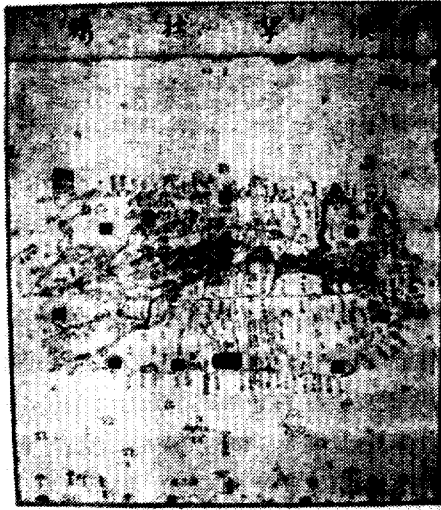
3. 18세기의 제주도 지도

1) 18세기 전반의 제주도 지도

① 『耽羅巡歷圖』의 「漢擊壯躡」

이 시기에 제작된 가장 대표적인 지도는 『탐라순력도』에 수록된 「漢擊壯躡」과 『耽羅地圖并序』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한라장축」은 제작연대가 확실하면서 (1702년)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제주도 지도이다. 이 지도는 앞에서 기술한 제주도 지도의 계보와는 다른 유형의 지도로 이와 똑같은 사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림첩에 수록된 필사본 지도로 집에 보관되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목판본의 제주도 지도처럼 널리 유포될 수 없었다. 지도의 규격은 첩에 수록

10) 이 지도는 세로 145cm, 가로 105cm로 지도 상단에 地誌 기록이 있다. 이 기록 가운데 제주성안에 향교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공개 당시의 언론에서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제주일보』, 2003년 1월 18일자 기사). 지도 상단의 기록에는 東海防護所가 없는데 1678년 목사 尹昌亨이 東海防護所를 혁파했기 때문으로 이 지도는 최소한 1678년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사진 1〉 『耽羅巡歷圖』의 「漢拏壯圖」

되어 있어서 세로47cm, 가로30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 지도로는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어 사실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훌륭한 지도로 평가된다.

이형상 목사가 「한라장축」과 같은 정교한 제주도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지리 지식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저술한 탁월한 제주도 지리지인 「남환박물」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그는 중국에 온 서양선교사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서구식 세계지도인 「坤輿萬國全圖」를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열람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외국

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지리적 중화관을 극복하여 자신이 앉아 있는 곳이 천하의 중심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에 있을 때는 안남에서 표류하여 돌아온 고을 사람으로부터 외국 사정을 자세히 듣기도 했다.¹¹⁾ 결국 「한라장축」은 이러한 지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라장축」의 전체적인 구도는 제주도를 독립적으로 그린 여타의 지도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고 24방위를 제주도 주변에 표시하였다. 또한 지도의 외곽에는 한반도 남해안의 지명, 중국의 여러 지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배치하였는데 거리 관계를 엄격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단지 방향만을 고려하여 그려 넣었다. 대신에 지도의 하단에는 방위에 따라 주요 주변지역까지의 거리를 기입하여 전체적인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는 것은 과거의 지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이 북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는 현대지도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섬 지방인 경우 본토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렸기 때문에 남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양식은 일본이나 유구국을 그린 지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과거의 지도에서는 하나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려지지 않고 어떠한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11) 李衡祥 「南宦博物」地誌條

주변에 24방위를 배치한 것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주변 지역과의 위치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4방위를 배치하고 해당 방향에 주변 지역을 그려 넣은 것이다. 이러한 방위 배치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울릉도 지도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이다.¹²⁾ 이는 항해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고 주변지역의 대략적인 위치 파악을 위해서였다. 서양의 경우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과 항해의 필요로 인해 중세를 거치면서 포르투갈노라는 항해용 해도가 많이 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해에까지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시대 항해의 경우 북극고도를 측정하거나 나침반의 방위각을 이용하여 항해하기보다는 바다 가운데의 섬이나 해안의 지형 지물을 항해의 참고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그려진 외국 지명의 경우 중국의 寧波府, 蘇州·杭州, 楊州, 山東省, 靑州를 비롯하여 日本, 琉球(지금의 오키나와), 安南國(지금의 베트남), 暹羅國(지금의 태국), 滿刺加(지금의 말레이반도)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을 통해 입수한 지식과 제주로 표류했던 외국인을 통해 전해들은 것으로 당시 서양과 달리 원격 항해가 제한되어 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조선과 교류가 활발했던 대마도의 경우는 우도의 옆에 위치시켰으나 일본의 북쪽 바다에 위치한 一岐島(이키섬)의 경우는 일본과 동떨어진 남쪽에 그려 넣었다. 그만큼 이 섬에 대한 당시인들의 인식이 낮았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라장축」의 제주도 부분은 비교적 당시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주목을 비롯한 정의, 대정의 읍치와 해안을 둘러가면서 설치되어 있는 防護所는 홍색으로 강조하여 그려져 있다. 또한 세 고을의 경계도 홍선으로 그려 넣은 점이 이채롭다. 해안 지역과 중산간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마을 이름들도 비교적 자세히 표시되어 있고 도내 전역에 분포해 있는 「오름」들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 지도에서 특징적인 점은 중산간 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던 목마장이다. 목마장의 경계이기도 했던 돌담(일명 「하жат」)을 점선으로 그려 넣었으며 각 소장의 명칭도 기입하였다. 이러한 목장의 모습은 『탐라지도병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즉, 『탐라지도병서』에서는 한라산을 둘러가면서 1소장에서 10소장까지 구획이 정해져 있고 중산간 이북의 山場을 표시하고 있는데 「한라장축」에서는 所牧場과 字牧場으로 목장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당시 제주도에 상위 단위의 大牧場으로서 所牧場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 小牧場으로서 천자문의

12)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1, 도판227 참조.

글자를 만 字牧場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¹³⁾ 이형상 목사가 저술한 『남환박물』에도 이러한 목장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가 10所場, 63字場으로 구성되어 목장이 분화가 이전 시기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후 정조 임금 시기에 이르면 제주도 목장이 10소장과 山場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국마장이 폐지되는 19세기말까지 이어졌다.

지도의 하단 여백에는 지도의 제작시기와 당시 지방관의 이름, 道里와 면적, 그리고 각 방위를 따라 도달하는 지역까지의 거리수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도면에서 빠진 정보들을 보충하여 한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동양의 지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다. 즉, 시각적 표현인 지도와 텍스트인 문장이 결합된 형태로, 고도로 추상화된 기호체계로 표현되는 현대지도와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耽羅地圖并序』

『탐라지도병서』는 1709년에 제작된 목판본 지도로 여기에도 刊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康熙己丑正月李等開刊」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의 李某는 1707년 부임하여 1709년 5월에 이임한 목사 李奎成으로 추정된다. 세로125cm, 가로98cm 대형의 지도로 상단과 하단에 地誌적인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중간에 지도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세 장의 목판을 위 아래로 이어서 만든 것으로 수록된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자세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후대에 제작되는 많은 지도들의 이 지도를 기본도로 삼았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던 지도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민속사연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도 하단의 기록에 新地圖, 舊地圖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존재하던 여러 종류의 제주 지도를 기본자료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대 최신의 정보들이 수록되기도 했는데, 1702년 목사 李衡祥이 三姓廟를 가락천 동쪽에 옮겨 세운 것과 1704년 목사 宋廷奎가 계청하여 목장을 축조함에 20所 60屯을 합하여 10所로 정한 사실, 1706년 목사 송정규가 西山場을 축조하고 貢馬를 포구로 내릴 때의 목장으로 삼은 사실 등이¹⁵⁾ 지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지도의 상·하단의 기록에는 각 고을의 연혁, 道里, 인구, 군사, 재정 등과 관련

13)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395쪽.

14) 李衡祥, 『南宦博物』, 誌馬牛.

15) 김석익, 『耽羅紀年』

된 기록과 명승 고적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에서는 지도에서와 달리 목장이 13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소장과 10소장, 대정의 毛洞場에 있는 黑牛場을 합했기 때문이다.



〈사진 2〉 1709년 『耽羅地圖并序』

지도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오름들과 林藪의 모습이 음각으로 자세히 그려져 있고 촌락과 포구들은 양각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천은 쌍선으로 그려져 있고 단선으로 그려진 것은 목장의 경계이다.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용천수의 모습도 生水라는 표시로 그려져 있다. 봉수는 오름의 정상에 불꽃 모양의 기호로 표시했고 군사 기지인 방호소의 모습은 원으로 강조되어 있다. 읍성을 특별히 확대하여 그리지 않고 주변 지역과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다. 도내 전역에 분포해 있던 과원은 원 안에 「果」라고 음각하였다. 마을의 이름과 포구의 이름의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실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장의 표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10소장을 비롯하여 산마장, 毛洞場, 川尾場, 獐場, 북쪽 해안의 左可場과 西山場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다. 또한 목장의 경계가 되는 돌담(갓성)과 함께 목장을 출입하는 門의 명칭까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문은 '梁'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민간에서는 '도'라 부른다. 원래 梁은 하천의 兩岸에서 돌이 무너져 쌓여 人馬가 건너다닐 수 있는 곳을 지칭하였는데 馬場에 설치한 문도 梁이라 칭했다는 설명이 서문에도 쓰여 있다.¹⁶⁾

지도의 방위는 육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렸기 때문에 남쪽이 지도의 상단이 되었다. 바다는 전통적인 水波描를 그려 넣었고, 사방으로는 干支에 의한 24방위를 표기하였다. 지도의 서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외국의 지명도 표기하였는데 특별히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방향에 위치시켰다. 대부분의 지명의 방향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한반도의 육지 부분도 실제 거리와 관계없이 지도의 상단에 배치시켰고 그 사이에 있는 섬들도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탐라지도병서』는 18세기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이며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널리 유포된 지도로 이후의 지도들도 이를 모사한 지도가 많다. 송실대 소장의 『제주지도』는 『탐라지도병서』를 필사한 대형의 지도로 필사한 품격은 다소 떨어진 다. 18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에도 『탐라지도병서』 계열의 지도가 「濟州三縣圖」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송실대 소장의 지도에 비해서 규격은 작지만 필사의 상태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채색되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탐라지도병서』는 중앙 조정에 보관되어 국가적 차원의 군현지도 편찬에서도 기본도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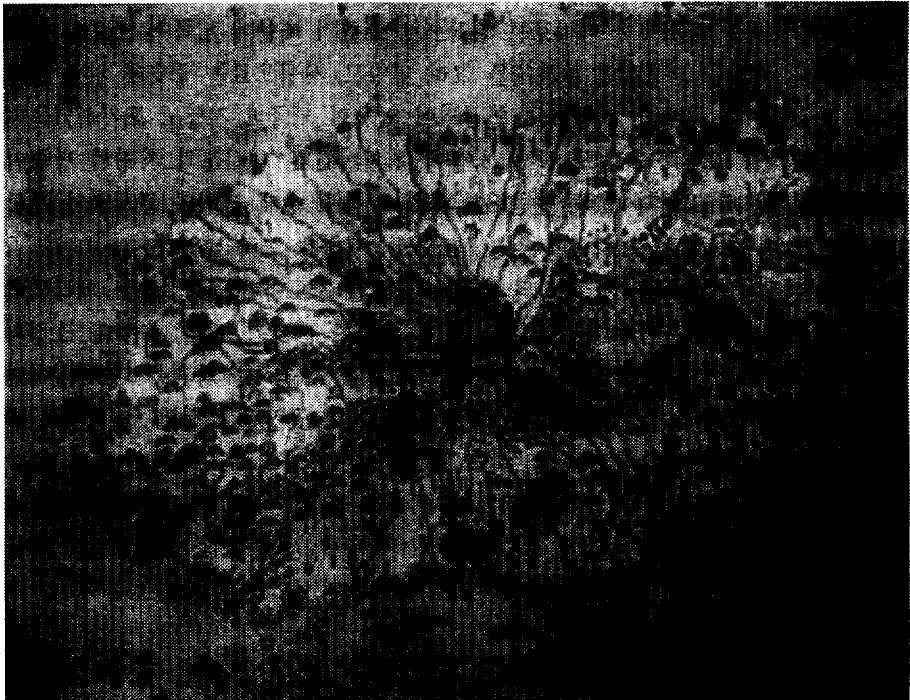
16) 『耽羅地圖并序』序文

2) 18세기 후반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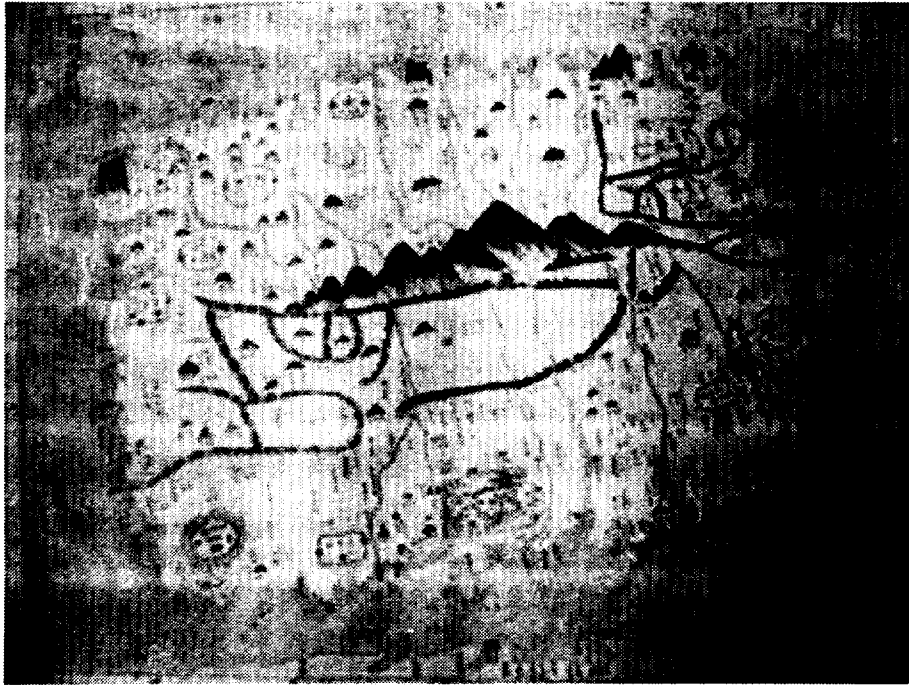
① 영남대박물관 소장 『全羅南北道輿地圖』 중의 제주지도

이 지도는 18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전라남북도여지도』에 수록된 것으로 규장각 소장의 『해동지도』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에는 두 종의 「濟州三縣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탐라지도병서』 계열의 것과 이것이다. 이 지도의 원형과 관련해서는 『해동지도』에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이 있다. 즉, 지도의 앞 페이지 제주목 주기 부분에 「耽羅兩地圖 皆是本邑印本 而詳略不同 竝存以備參考」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록된 「제주삼현도」가 모두 목판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도 역시 『탐라지도병서』와 같은 목판본을 필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도의 윤곽은 매우 과장되어 있다.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한



〈사진 3〉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 I」



〈사진 4〉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II」

점이거나 주변에 24방위를 배치한 점, 서남쪽에 외국의 지명을 배치하고 북쪽으로 조선의 육지부 지명이 표기된 점은 『탐라지도병서』류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지도는 회화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데 한라산의 모습이 더 강조되어 표현되었고 한라산에서 뻗어내린 입수의 표현도 강렬하다. 특히 읍성은 주변 지역에 비해 확대하여 내부의 건물까지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앞의 유형에 비해서 규격도 작고 제주도의 모습도 동서로 압축되어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성곽으로 이루어진 읍치와 방호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조되어 크게 그려져 있는데 관아 건물도 매우 상세하다. 수려한 경관을 지닌 성산 일출봉, 산방산, 송악산 등도 크게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홍살문을 그려 열녀문과 효자문을 표시하였고亭子와 祠宇 등도 그려 넣어 문화적인 측면도 강조하였다. 제주도 주변의 도서나 남해안 지역, 그리고 중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지명들은 거리관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그려져 있어서 『탐라지도병서』의 유형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진다.

바다에 그려진 섬과 외국 지명도 위치상 오류가 많이 보인다. 송악산의 남쪽에 있는 가파도와 마라도의 위치가 이의 서북쪽에 잘못 그려져 있다. 송악산 부근 바다에는 중국의 유명한 고사와 관련된 葛石과 田橫島가 그려진 점이 독특하다. 또한 琉球國, 小琉球의 모습도 성산포 부근의 엉뚱한 곳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지도가 실용적 목적에서 제작되었다기보다는 역사적, 이념적 성격이 강한 지도임을 시사한다.

또한 지도에 그려진 내용들도 당시대의 사회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남쪽 대정현의 東海所가 이미 혁파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려져 있고 대정현의 향교가 1653년 이원진 목사에 의해 簾山으로 이설되는데 여전히 옮겨가기 전 위치에 있다. 특히 서귀소는 위쪽에 있다가 바닷가 쪽으로 1590년에 이전되는데¹⁷⁾ 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轉寫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성곽의 모양으로 그려졌던 구서귀소의 모습이 오목한 만으로 그리고 배까지도 그려 넣었다. 필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도 왜곡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17세기 중반경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이 지도는 17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목판본 지도를 그대로 필사한 제주지도의 계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濟州三邑都摠地圖』

17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축척의 지도이다.¹⁸⁾ 세로122cm, 가로119.5cm의 규격으로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 지도의 배치는 앞의 지도들과 동일하게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하였고 주변으로는 干支로 된 24방위를 배치하였다. 지도의 외곽으로 외국의 지명들도 기재되어 있고 북쪽에는 조선의 남해안도 그려져 있다. 바다에는 수파묘가 그려져 있으며 얇은 청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전체적인 지도의 윤곽은 제주목 관아가 있는 해안이 만의 형태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지도에 수록된 내용은 한라산과 여기에서 뻗어내린 林藪, 주변의 오름들, 마을과 포구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 지도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목장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17) 김상헌, 『남사록』

18) 『제주의 옛 지도』에서는 1770년대로 제작연대를 추정하고 있으나 추정의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주읍성 안에 향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향교가 성밖으로 옮겨가는 1755년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보다 세밀한 제작시기의 추정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중산간에 포진되어 있는 10소장과 더불어 천미장, 모동장 등의 牛牧場도 그려져 있다. 또한 각 소장에는 비를 피하던 곳인 避雨家와 물을 먹이던 水處도 그려져 있고 잣성에 있는 출입문도 표시되어 있다. 특히 산마장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驅馬할 때 사용되었던 尾圓場, 蛇場, 頭圓場 등의 시설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산마장에서 키운 말을 진공하기 위해 한쪽으로 몰아 點馬하던 시설이다. 이와 같은 시설은 1702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 「山場驅馬」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산장구마」에서 묘사된 산장의 구점은 세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구두리오름 기슭의 孝生場이 가장 중심이 되고 영아리오름 근처의 長水勿場이 중간 규모, 돛배오름 서남쪽의 怪宗場이 가장 규모가 작은 점마장이었다. 그러나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는 孝生場만 그려져 있는데 세 곳에서 분리되어 행해지던 驅點이 효생장 한 곳으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¹⁹⁾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제주삼읍도총지도』는 馬政이라는 실용적인 목적하에 제작된 것으로 비록 전체적인 해안선의 윤곽이 왜곡되어 있지만 최신의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일종의 주제도적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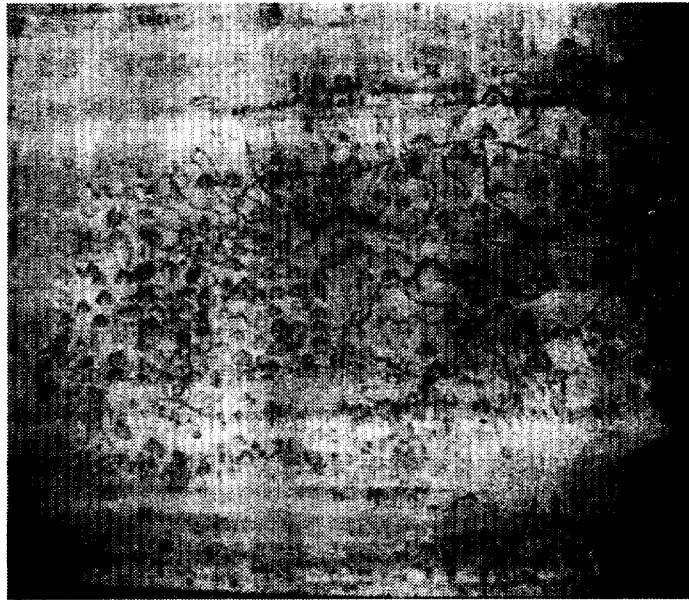
4. 19세기의 제주도 지도

1) 19세기 전반의 지도

① 李源祚의 『耽羅地圖并識』

19세기에도 제주도 지도의 제작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원조 목사에 의한 『탐라지도병지』의 제작을 들 수 있다. 이원조(1792-1871)는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이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현재 후손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례 또한 제작의 연대가 명시적으로 밝혀진 중요한 것으로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다음은 기록의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지도 제작의 목적, 제작과정, 지도에 대한 당시인의 생각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9) 남도영, 2001,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74쪽.



〈사진 5〉 李源祚의 『耽羅地圖并識』

탐라지도는 옛날에 板刻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닳아 헤어지고 크기도 커서 병풍이나 족자로 만들기에 불편했다. 듣기에 제주사람 高敬旭라는 자가 瀛洲十景을 잘 그려 옛날 목판본 지도를 모사했다. 규격은 전에 것에 비해 3분의 1로 줄이고 방리와 촌명, 언덕과 시내 중 이름이 없는 것은 생략하여 번잡함을 제거하고 간단하게 했다. 목을 채색으로 바꾸고 보기에 편하다. 족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았다. 바다가 널리 펼쳐져 있고 한라산이 우뚝 솟았으며 망루와 성과의 배열, 민간의 가옥들이 펼쳐짐과 포구의 방수하는 곳, 月朔으로 진현하는 數, 해외 여러나라의 방향과 원근 등이 한눈으로 보아 알 수 있으니 臥遊할 수 있는 자료이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혹 반박하는 자가 있어서 말하기를, “땅은 상세하나 바다는 소략하다. 만리가 축소되어 땅을 접하는 것과 같으니 그림의 결점이라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地促이 手拙하니 무슨 허물이겠는가? 또한 바다보다 큰 것이 없으니 작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대가 達眼으로 그것을 보더라도 단환과 같은 한 섬이 四極과 더불어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모를 것이다.” 하니 서로 한바탕 웃고는 그것을 쓴다.²⁰⁾

20) 李源祚 『凝窩集』 권15, 耽羅地圖小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원조는 고경옥을 시켜 당시까지 전해오던 『탐라지도병서』를 축소 모사하도록 했다. 『탐라지도병서』는 대축척의 자세한 지도로 오히려 열람하기에 번잡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의 지도 문화에서는 상세하고 대축척의 지도가 항상 효율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도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도를 지니고 군사적 목적이나 실제 행정적인 목적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세한 대축척의 지도를 선호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대략의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형세를 한쪽의 그림처럼 감상하고자 했던 사람은 복잡한 지도보다는 쉽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보다 간략한 채색의 지도를 선호했을 것이다. 『탐라지도병지』는 후자와 같은 목적에서 제작되었던 대표적인 지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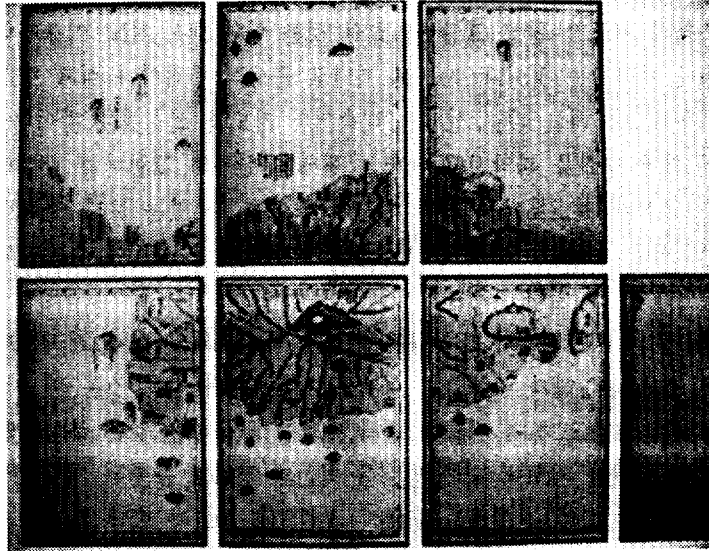
또한 인용문의 후반부에서 드러나듯이 섬과 육지부와의 실제 거리관계가 고려되지 못한 점을 불평하자 李源祚는 실제의 거리관계와 같은 것은 이 지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지도를 통해 地理를 궁구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지도에 대한 인식은 최신의 정보가 수록된 지도제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도를 감상하는 臥遊의 資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행정의 도구라는 실용성을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상의 대상이라는 예술적 흥취를 의도했던 이중적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김정호의 『청구도』 중의 제주지도

『탐라지도병지』와 같은 개별 제주지도는 여전히 앞서 제작되었던 지도들을 모사하는데 그친 반면 김정호의 『청구도』와 같은 대축척 지도책에 수록된 제주 지도는 더욱 정제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전체적인 윤곽은 거의 실재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고 내부에 표시되는 지명도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군사 행정적으로 중요한 항목들만 선택적으로 수록되고 있다. 즉, 방호소, 봉수 등의 군사시설과 공마와 관련된 목마장, 進貢과 관련된 과원, 재정 자원을 보관하는 창고와 주요 포구들이 중요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지도에서는 개별 제주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산지의 표현방식이 나타난다. 즉, 이전의 개별 제주지도에서는 기생화산인 오름들을 독립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체계에 따라 각 오름들도 연맥식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방호소, 창고, 과원, 읍치, 봉수 등의 항목도 기호를 사용하여 일관되게 표현하였다. 회화적 형식을 지양하여 보다 정제된 지도학적 표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축척 전도의 발달과 기존에 구축된 제주 지도의 다양한 제작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사진 6〉 『청구도』중의 제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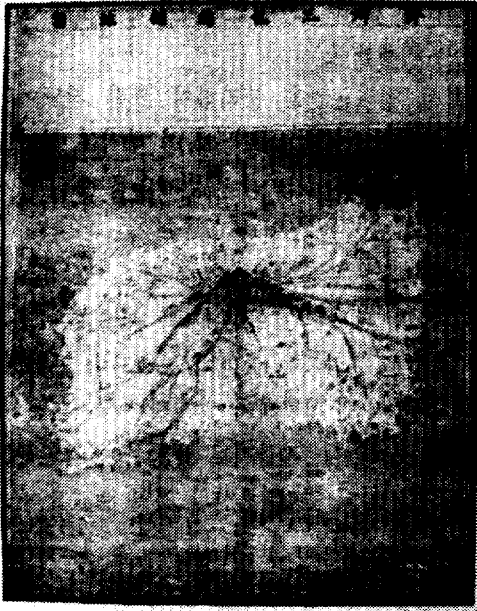
2) 19세기 후반의 지도

① 규장각소장의 『濟州三邑全圖』

1872년에는 조선왕조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진 전국적 규모의 군현지도 제작사업이 추진되어 중앙으로 수합되게 된다. 『제주삼읍전도』는 이 때 작성된 지도첩에 수록된 지도이다. 여기에는 제주도 전도뿐만 아니라 제주, 정의, 대정의 고을로 분리하여 그린 분도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大靜, 旌義 등의 고을이 縣이 아닌 郡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대정, 정의 두 고을이 1864년(고종 1)에 郡으로 승격되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²¹⁾

지도의 규격은 세로69cm, 가로109cm로 비교적 큰 편에 해당한다. 지도는 육지 부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 남쪽이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위에

21) 이후 두 고을은 1880년(고종17)에 다시 縣으로 환원되었다.



〈사진 7〉 『제주삼읍도총지도』

干支로 된 24방위를 배치한 점이 독특하다. 제주도와 같이 육지부에 인접한 섬이 아닌 경우에는 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방위와 주변 지역을 일부 그려 놓기도 했다. 남쪽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安南國, 暹羅, 滿刺加, 占城 등의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그려져 있다. 기생화산인 오름의 모습을 자세히 그렸고 중산간 지대에는 10개의 목마장을 경계와 함께 표시하였다. 各面에 소속된 마을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인접한 面과 구분한 점도 다른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점이다. 군현의 이름과 해안의 鎭名이 붉은 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되었다. 특히 해안의 봉수대와 포구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한라산의 靈室에는 많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五百將軍이 그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제주지도 가장 정제되고 실재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된 지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같이 수록된 「濟州地圖」는 「제주삼읍전도」처럼 한라산이 있는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지도의 하단에는 남해안의 고을과 포구, 도서들을 배치하여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해안의 鎭과 포구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禾北鎭의 別刀浦와 朝天鎭의 朝天浦는 육지와 교류하던 관문에 해당한다. 해안에 상세하게 표시된 煙臺와 烽燧 등을 통해 지도의 군사적 성격도 엿볼 수 있다. 서쪽의 上貴里에는 '土城'이라는 표시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삼별초군이 몽고를 상대로 항거했던 곳이다. 읍치의 남쪽에는 高·梁·夫 三姓의 탄생 신화가 남아 있는 삼성혈의 모습이 보이고 그 남쪽 三義陽岳에는 산천제를 지냈던 山川壇도 표시되어 있다. 중산간 지대에는 많은 목마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1, 2, 3, 4, 5, 6소장이 있었다. 동쪽과 서쪽의 上大路에는 길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원취락도 표시되어 있는데 濟泉院과 利往院이 그것이다. 이 주변에는 生水, 寺泉과 같은 水處가 표시되어 있다. 제주도는 화산암 토양으로 이루어져 물이 귀하기 때

문에 촌락의 입지에 용수가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한라산의 분화구에 있는 백록담은 지명처럼 흰색으로 표현한 점이 이채롭다.

「濟州旌義郡地圖」는 『제주삼읍전도』에서 정의군만을 분리하여 그린 지도이다. 정의군에는 중산간에 설치되었던 牧馬場으로는 9소장, 10소장이 이 지역에 있었고, 녹산장과 같은 광활한 산장도 만들어져 있었다. 읍치지역과 주변지역을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기 때문에 객사, 아사, 문묘 등의 표기만 보인다.

동쪽의 성산 일출봉은 봉우리의 모습을 다소 독특하게 표현하였고, 그 옆에는 지금의 신양해수욕장에 해당하는 모래사장의 표시도 보인다. 서쪽 西歸鎮은 현재의 서귀포시 시내에 해당한다. 그 서쪽 法還里 근처에는 大畚이 표시되어 있다. 원래 제주도는 화산암 토양으로 이루어져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 지역은 풍부한 용수를 이용하여 벼농사가 행해지던 곳이었다. 관광지로 유명한 천지연폭포, 정방폭포에는 '天帝淵', '正方淵'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산간 지역 西衣貴 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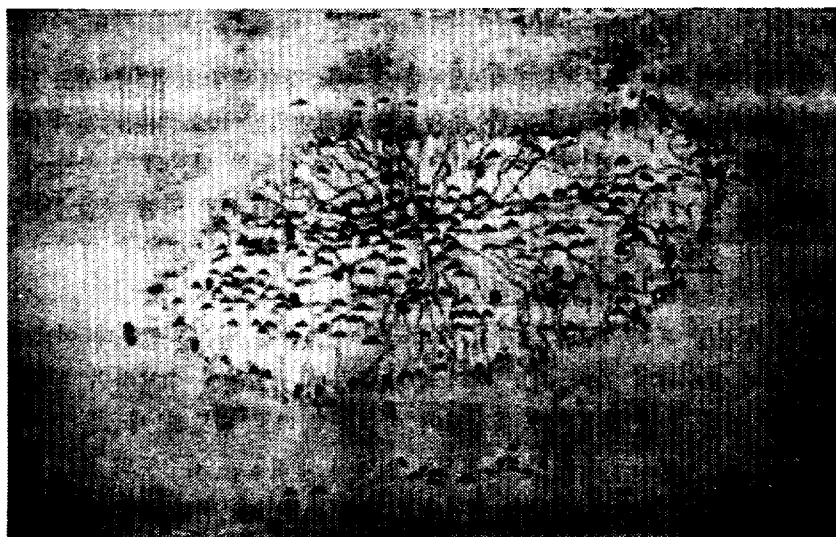
〈사진 8〉 『전라남북도여지도』의 제주지도

에는 衣貴院이 표시되어 있는데 성읍에서 서귀로 가는 길가에 있어서 나그네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院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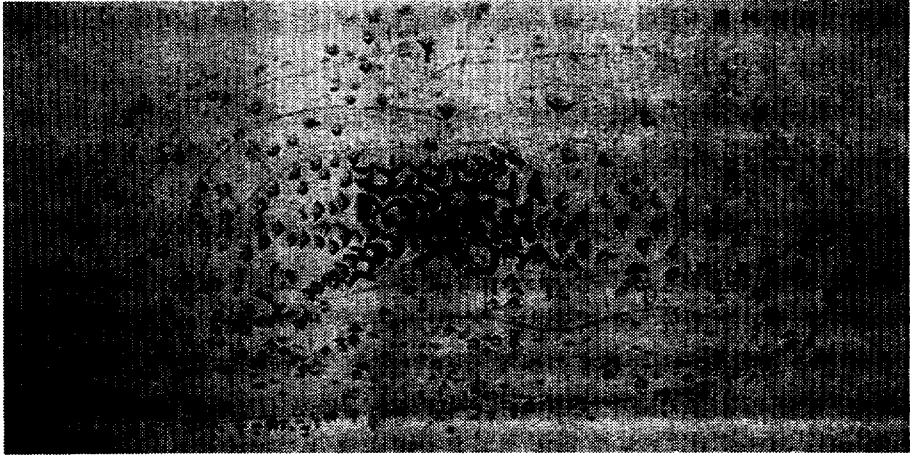
「濟州大靜郡地圖」는 보통의 회화식 군현지도와 달리 읍치를 확대하여 표현하지 않고 주변지역과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다. 산간 지역에는 목마장이 있었는데 7소장과 8소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쪽 지금의 신도리에는 소를 키웠던 毛洞場이 경계선과 함께 그려져 있다. 읍치에는 읍성의 모습을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고, 성 안에는 衙舍, 客舍라는 표시만 있고 관청 건물은 전혀 그리지 않았다. 남쪽의 單山 아래에는 향교가 있었는데 지도에는 '文廟'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지역의 명산으로 이름난 산방산이 독특하게 그려져 있으며 현재 '용머리'라 불리는 해안의 절경에는 '龍頭'라고 표기되어 있다. 굴을 재배하여 국가에 공납하던 果園은 원 안에 '果'라는 글자로 표시하였다. 다른 지도와 달리 도로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 대신에 중산간 지대의 '上大路', 해안 저지대의 '下大路'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② 「濟州郡邑誌」 중의 「濟州地圖」

1899년(광무3) 5월에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제주군읍지』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이다. 1895년 행정구역이 모두 군으로 변경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사진 9〉 『제주삼읍전도』



〈사진 10〉 『제주군읍지』 중의 「제주지도」

읍지에 첨부된 지도이지만 규격이나 수록된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전체적인 윤곽은 다소 왜곡되어 있으나 이는 책의 규격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이전 시기 독립된 형태의 제주도 지도에서처럼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24방위 표시나 외국 지명들과 남해안, 그리고 그 사이의 섬들은 제외되어 있다.

중앙부의 한라산은 풍수지도인 山圖처럼 맥세를 강렬하게 표현하면서도 독립된 형태의 오름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목장이었던 10소장의 경계가 상жат성과 하жат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그려진 점이 이전 지도와 다르다. 하천도 상세하게 그렸는데 군 경계와 구분하기 위해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해안에는 도로만이 그려져 있고 해안선의 표시가 없는 것도 한 특징이다. 해안에 그려진 일부 섬을 통해 해안선의 윤곽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목장의 상жат성 위쪽으로도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섯 군데에 火田洞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 뒤의 읍지 본문에 火田稅를 수세하던 기록이 있어 산장이 있던 곳에 화전촌이 형성되어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²²⁾ 10소장과 字牧場 체제로 이어져 내려왔던 제주도의 馬政은 1895년(고종32) 지나친 貢馬와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貢馬制를 혁파하고 돈으로 바꾸어 上納하도록 하는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국영목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

22)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제주의 옛 지도』, 도판 해설.

다.²³⁾ 지도에 표시된 화전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마장에서부터 화전의 개척이 이뤄지고 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도」는 전래의 지도를 참조하면서도 새로이 변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읍지의 附圖이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들을 시계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지도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일관된 패턴을 추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상에서 파악된 잠정적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는 조선 최대의 목마장이며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도의 제작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선전기에 이어 임란 이후에도 꾸준히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17세기 지도의 흔적들을 현존하는 『동여비고』 중의 제주도 지도, 영남대 박물관 소장 『고지도첩』의 「탐라전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지도는 내용의 왜곡이 심한 편이다.

둘째, 18세기 전반에는 보다 정교화된 대축척의 독립된 지도제작이 이뤄지는데 『탐라지도병서』와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탐라지도병서』는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널리 유포되었고, 중앙 조정에도 보관되어 영조 대의 군현지도책 제작에 기본도로 활용되기도 했다. 후반에 제작되는 지도 가운데는 『전라남북도여지도』에 수록된 지도처럼 상대적으로 왜곡이 심하고 실용적 차원보다는 이념적, 역사적 성격이 강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셋째, 19세기 전반에도 이원조 목사가 제작한 『탐라지도병지』처럼 이전 시기의 지도를 기초로 축소, 필사한 지도가 탄생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도는 행정용의 실용적 목적과 감상용의 예술적 목적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반면 김정호의 『청구도』처럼 정확성을 지향하는 대축척 전도에서는 제주도의 모습이 정제된 모습으로 표현되어 실용적 차원의 목적을 잘 충족시켜 주고 있다. 아울러

23) 金錫翼, 「耽羅紀年」 고종 32년.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 소장의 『제주삼읍전도』는 『탐라지도병서』의 맥을 잇는 마지막 지도로서 실용적 목적을 극대화시킨 정제된 형태의 지도이다. 반면 1899년의 『제주도읍지』에 수록된 「제주지도」는 지도의 윤곽이나 지형의 표현 등에서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당시 시대상의 변화도 반영하려고 시도했던 대표적인 읍지의 附圖이다.